

▶▶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 역사 속에서 변모된 비너스의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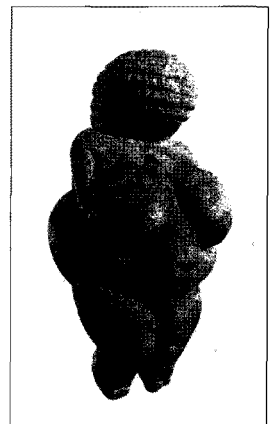
**인**간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가치, 진선미를 되새겨 보면서 미의 화신인 비너스를 수학의 역사 속에서 조명해보자. 수학과 미술은 과학과 예술이지만 같은 시대정신을 표현하면서 역사 속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변모되기 때문이다.

### 인류 최초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최초의 인체 조각은 기원전 2만4천~2만2천년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너스의 원형으로 인정되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불린다.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아름다운 부분은 없다. 커다랗고 두툼한 둔

부, 풍만한 젖가슴은 많은 자손을 바라며 풍요를 기원하는 구석기인들의 염원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었다.

한편, 고대 그리스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폄하했던 불평등한 시대였다. 여성은 1/2의 가치를 지닌 열등한 존재로 보았으며, 오직 그리스의 남성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글\_ 계명회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yhkye@kosin.ac.kr  
글쓴이는 이화여대 수학과 졸업 후 한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홍익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신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원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출판부장, 한국수학사학회 부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간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고대 올림픽 경기는 남성들만 참가하면서 즐겼던 잔치였다. 폴뤼클레이토스의 조각 '큰 창을 든 남자',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모두 벌거벗은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가 모델이었다.

여성이 벗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포르노그래피적인 마인드는 인간 여성이 아닌 여신을 조각하고 만다. 유명한 '크니도스의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는 그리스적인 기하학 정신이 투사되어 8등신으로 제작되었다. 비례와 균형, 조화를 숭상하던 그리스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었다.

### 르네상스의 비너스를 그린 보티첼리

기독교가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유럽의 중세사회는 인간을 열등하고 비참한 존재로 치부하였다. 인체의 본능을 경건하지 못한 죄악으로 생각했으며, 여성은 선악과를 따 먹은 이브의 후손으로 더욱 경건하지 못한 존재였다. 또 군인으로 국가에 충성할 수 없었으므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게 취급되었다.

1천년간 잠자던 중세사회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문예 부흥을 일으키자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화가 보티첼리는 그리스 시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8등신의 여성으로 비너스를 그린다. 조개 속에서 몽환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비너스의 탄생'이 발표된다. 그러나 아직도 작품은 여성의 이름이 아닌 여신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비례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적 사고의 전통이 부활한 것이다.

### 도발적인 다비드 제자, 여류화가 브노이스트

17, 18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와 절대왕정의 시대를 지나면서, 프랑스에서는 신분제도와 구제도의 타파를 외치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다. 루이 14~16세의 사치와 향락이 국가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한 결과, 배고픈 6천 명의 아줌마 부대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갔으며,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쟁을 불붙였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면을 그린 유명한 다비드는 여성 화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성도 직업화가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그의 제자 마리 길헬미네 브노이스트



▶▶ 1 길헬미네 브노이스트 '흑인여성의 초상' 2 파올라 베커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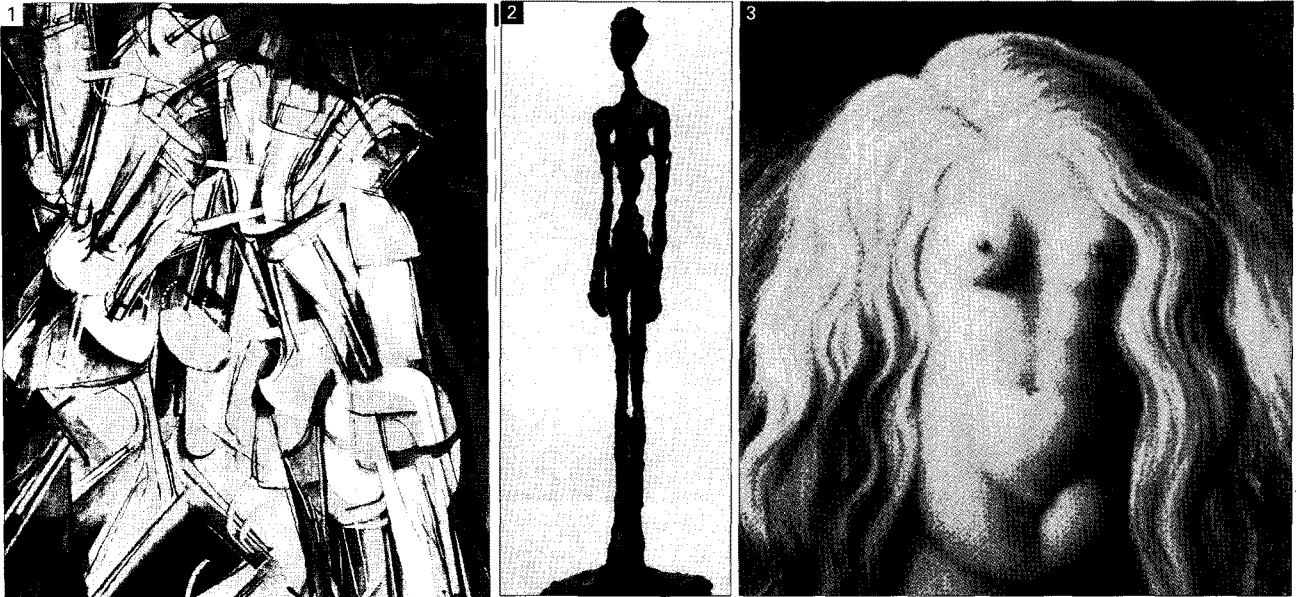
트가 1800년에 발표한 '흑인 여인의 초상'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식민지에서 노예매매를 금지한 것이 바로 직전의 일이었기에 노예였던 흑인을 모델로 여성화가가 누드화를 그린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스타일리시하게 말아 올린 하얀 두건과 주름진 하얀 옷은 까만 피부와 대조를 이룬다. 노예 신분의 두려움도, 가슴을 드러낸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함과 진지함을 보인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다비드의 제자 앵그르는 여성의 곡선미와 신비로움을 아름답게 표현한 남성 화가였다. 여성의 피부 밑 피하지방까지 느껴질 정도로 뛰어나게 묘사하여 고전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되며 같은 시대,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화가였지만 남성과 여성이란 성의 정체성에서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표상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 여성의 자기성찰은 모성애

자유성을 추구하는 19세기가 도래하자 수학에서는 1883년, 칸토어에 의해 수학의 대상을 모두 점으로 쪼갠 '집합론'이 발표된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라고 선언하면서 그는 종래에 터부시하였던 무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여성들은 자기성찰을 한 결과, 1883년 같은 해 수잔 발라동은 산고를 치르면서 아기를 생산한 후에 양육해야 하는 책임 있는 모성애로 자화상을 그렸다. 이제 여성의 몸은 더 이상 남성의 성적 대상이 아니었다. 20여년 후, 파울



▶▶ 1 뒤상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 2 자코메티 '서있는 여성누드' 3 마그리트 '강간'

라 모더존 베커는 임신한 몸을 나체자화상으로 그렸다. 수백년 동안 남성화가들 위주로 그려진 여성의 나체화를 여성화가가 그린다는 것부터 충분히 사회적 센세이션이었다.

수학의 모든 대상을 점으로 분해한 요소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었던 집합론은 수학의 전 영역을 추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어 대수학, 해석학이 모두 추상화해갔다. 그 후 세계 1, 2차대전을 겪으면서 허무주의에 빠진 서구문명은 인간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수학에서는 오직 연속함수에 의해 변하지 않는 도형의 성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기하학, 토폴로지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길이, 면적, 각의 크기 등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모두 제거된 요소다.

토폴로지적 개념은 예외 없이 추상화된 현대미술의 미술가들에게서 표현되었다. 자코메티의 '서있는 여성누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체 비율의 조각이다. 단지 인체의 골격만을 표현하여 여성인지 남성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토폴로지적인 조각이다. 뒤상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는 처음 발표되었을 때 조롱과 비난을 받은 작품으로 여인의 얼굴은 물론, 육감적인 나체의 풍만한 볼륨감과 각

선미는 전혀 없다. 계단을 내려올 때 뼈와 관절이 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수학과 미술이 초현실주의로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힐버트는 기하의 대상을 3차원 공간에 만족하지 않고, n차원과 무한차원으로 확장했다. n차원과 무한차원의 공간이란 사실 비현실적이며 초현실의 세계이다. 하지만 수학이란 독특한 학문은 이 공간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초현실의 개념은 역시 미술에서도 예외 없이 초현실주의 화가를 탄생시킨다.

초현실주의 대표적 화가 마그리트의 '강간'을 보자. 요즘 핫이슈인 성폭력을 예견하듯 여성의 몸을 성폭력의 가해자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성의 몸이 생산과 풍요의 대상이었고, 성적만족의 대상이었던 것만 오늘날은 폭력의 대상으로 변질된 것이다. 고전미를 풍기던 비너스의 아름다운 자태가 성폭력의 피해자로... 그렇다면 우리시대 진정한 의미의 비너스는 누구일까?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악해진 것은 지구가 종말을 향해 질주하기 때문일까? **ST**

#### 바로 잡습니다

지난 12월호 '수학이야기 - 동양과 서양의 기하학 차이가 만든 미술회풍' 기사 중 7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의 "그러나 김홍도의 스승 강희언이 투시화법을 수용하였지만 ..... 못한다. 강희언의 제자 김홍도의 작품에서는 ..... 컴백하고 만다"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강희언'과 '김홍도'의 오타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